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이 선 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omparison about Clothing Attitude among Korean-American Students and Korean Student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Sun Ja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 Myung University
(1991. 3. 18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lothing attitude of college living in different culture area and to find out the critical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ir attitude.

Samples subjected to this study were 774 college students consisted of 368 Korean students living in Seoul, 286 American students and 120 Korean students resident in New York.

Clothing attitude was Measured by questionnaires composed of four variables; Clothing Attitude, the aspect of clothing habit, self-esteem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by t-test, χ^2 -test, 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clothing attitude variables except expression of personality and personal satisfaction according to culture area.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clothing attitude according to culture area.
 - 2-1) Clothing attitude of Korean students were more affected by self-esteem than that of American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resident in N.Y.
 - 2-2) Clothing attitude of Korean students were more affected by sex, grade, major and income than that of American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resident in N.Y.
3.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clothing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urned out to be self-esteem and cultural area. Other variables such as sex, major and income had some effect on clothing attitude such as sex, major and income had some effect on clothing attitude.
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spect of clothing habit according to culture area.

*이 논문은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1989年度 研究費 支援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4-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spect of clothing wearing variables according to culture area; clothing wearing motives, influence by reference group about dress, dress according to uses.

4-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of clothing buying behavior variables according to culture area; the factor on clothing selection, the place of clothing buying.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의복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 시대의 사상, 행위 및 관습 등 인간과 물질문화 사이의 변천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산물의 한 범주로서 그들 자신의 문화는 물론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며¹⁾ 과거로부터 의복의 다양한 양식들은 집단이나 개인의 문화적 기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

더우기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다국적인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국제행사의 개최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복은 더더욱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그 사회의 관습과 가치관 및 종교 등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발전되고 영향을 받은 문화와 개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 문화에 따른 의복의 다양성은 오늘날 고도의 수송수단과 대중매체의 발달에 의한 문화의 전파로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 되어 또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즉 문화적 차이가 사라짐에 따라 의복 스타일이나 개인적인 의생활 역시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양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대도시 젊은 이들간의 유사한 옷차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급속한 서구화의 영향과 더불어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 가치관의 변화, 활동영역의 확대 등 여러가지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해 의복소비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점차 의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의복은 이제 단순히 생활 필수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필수품적 역할에서부터 사회적 측면을 대변하는 사회적 참여와 자신의 권위나 자기표현의 수단인 생활문화품으로 그 역할이 이행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 문화의 전파에 따른 각 사회의 의복이 갖는 역할이나 인식의 보편적인 경향이 과거로부터 각 문화가 갖는 특성과 기질에서 반영된 의생활 양상이나 각 개인이 갖는 의복태도의 특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문화에 따른 의복의 보편성과 상이함이 상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현대의 복잡 다양한 의복행동을 국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문화권이 다른 국내 의복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은 문화에 따른 의복행동 비교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의류수출산업에 있어 상품디자인 개발의 소비자 행동파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가 뚜렷하고 가장 패션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되는 미국 대학생,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대학생, 그리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를 밝히고 아울러 문화권에 따라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미국, 교포, 한국대학생간의 의복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1) 자아존중감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2-2)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3) 의복태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4) 문화권에 따라 의생활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며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에 따른 의생활

패션은 삶의 총체적인 반영으로 문화의 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패션과 패션변화는 오직 주어진 사회의 문화구조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문화는 사람들의 특정한 생활방식으로서 이들 방식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행동과 그 행동의 산물 즉 물질적 산물에 의해서 표현된다²⁾. 의복은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산물의 한 범주로서 그들 자신의 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또는 열쇠가 된다¹⁾. 그러므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문화에 의해,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본능적인 것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는 각 사회마다의 문화양식이 의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명백해 지는데, 이로 인한 의복의 다양한 양식들은 집단이나 개인의 문화적 지리적 기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복식에 반영된 문화양식들이 의복 스타일로부터 만이 아니라 관습, 관례 그리고 종교에 의하여 특징지워지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에 따른 의복의 다양성은 오늘날 대중전달 수단과 근대적 수송수단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이 통합됨으로써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의 특징이 감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복 스타일도 점차 보다 더 보편적인 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특히 젊은이들간의 옷차림에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경향이 문화권에 따라 의복 행동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근본적인 전제를 완전히 무효화한 것은 아닐 것이다³⁾. 의복과 관련된 문화적 양식들은 여전히 세계의 여러 지역에 아직도 확고하게 남아 있으며 각 문화에 따른 의복의 특성 및 인식태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 Milgram⁴⁾은 동조행동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프랑스와 노르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조사한 결과, 노르웨이 학생들이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프랑스인의 문화가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것을 강조한 데 반해, 노르웨

이 문화는 집단에 대한 정체감,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해석했다. 이와 유사한 동조성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의복과 관련시켜 연구한 Chen⁵⁾은 미국과 중국여대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중국여대생들이 미국여대생들 보다 의복동조성이 높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개인적이고 개방된 서구사회와 폐쇄된 중국문화의 차이에 따른 의복행동의 상이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강경자³⁾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양국 여대생의 욕구가 의복선택행동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비교연구한 결과,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욕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같이 각 문화에 따른 상이함은 각 문화권의 직접적 비교연구외에도 각 나라마다의 유사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의복착용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도 McGulloug 등⁶⁾은 미국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성의 선택에 흥미를 가지므로 많은 여성들이 의복을 성적 매력 향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한 반면, 김경희·임숙자⁷⁾, 이은주·이인자⁸⁾의 경우 의복착용동기는 예의성이 가장 중시된다고 하였다.

Burnkrant & Cousineau⁹⁾, Witt & Bruce¹⁰⁾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의복선택시 친구들이 정보원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나 이희남¹¹⁾의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어머니나 누나 등 가족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atzke¹²⁾와 Warden¹³⁾, Hurlock¹⁴⁾은 의복선택 요인으로서 유행스타일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둬므로써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지적했으며, Holton과 Sproles et al은 상점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의복선택요인으로 들었다. 이에 반해 국내 연구의 이선재¹⁵⁾는 남녀대학생의 의복선택 요인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경제적 측면과 활동성 측면이라고 밝혔으며, 임숙자¹⁶⁾는 스타일, 몸에 맞는 정도, 색상의 순으로 보고했다. 한편 의복선택행동에 대한 한·미 양국간을 비교한 강경자³⁾는 한국여대생은 정숙성, 외관, 관리성, 신분상징, 동조성, 도구, 실험성의 순인 반면, 미국여대생은 외관이 가장 높고 관리성, 도구, 신분상징, 동조성, 정숙성, 실험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의복구매장소는 미국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¹⁷⁾에서 미국대학생들의 경우 의복구매시 주로 전문점을 이용하며 백화점의 이용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연구보고들^{11,15,18)}의 경우는 대개

백화점이나 할인점, 시장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의복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는 의복에 두는 상대적인 가치에 관한 태도나 의복을 중요시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7가지 변인의 의복태도에 관한 문헌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외관

의복을 신체적인 약점을 최소화하거나 신체의 특징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Recharls와 Hawthorne¹⁹⁾은 의복을 물리적 신체의 확장 또는 전인격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체적 만족도는 신체기능 및 외모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행동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Ford와 Drake(1982)²⁰⁾은 자부심이 높고 신체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의복을 통해 독특한 자기투사를 할 수 있으며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고 했다. 이영운¹⁸⁾은 신체적 만족도가 높고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2) 개성의 표현

자신의 사회적 측면을 대변하는 수단으로서 개성이나 성격을 표현하는 의복의 가치를 말한다. Sontage와 Schlater²¹⁾는 자아에 대한 의복의 근접성(proximity)의 개념에서 의복은 자아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박광희, 강혜원²²⁾은 지배성이 높은 집단이 더욱 개성적인 의복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도 높다고 했으며, 이인자²³⁾는 의복에 있어서 개성적인 것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은 충동적이며 과단성이 있다고 하였다. 양명희²⁴⁾는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독특한 디자인이나 색을 선택하여 개성표현에 관심이 높다고 했으며, 강경자²⁵⁾는 의복에서 개성주의자는 자아실현성이 높고 내부 즉 자기지향적이라고 했다.

3) 인상형성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복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성이나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을 뜻한다. Erwin²⁶⁾은 한 개인이 소지하는 가치는 의복선택을 통해 직접, 간접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며, Horn과 Latzke²⁷⁾는 개인이 지니는 가치가 의복행동을 주도함은 물론 의복은 한 인간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 Humprey와 Klaasen과 Creekmore²⁸⁾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모두 그들 자신에게 관심을 끌고자 의복을 사용하며, Reeder²⁹⁾는 체육계열 남자대학생중 흑인학생이 백인보다 남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의복을 입으려고 하며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한다고 했다.

4) 승인성

어떤 집단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소속감이나 우정, 동조성 등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감정과 욕구를 뜻한다. Jacobson³⁰⁾은 자기주장, 사회적 인정 및 동조에 대한 욕구가 패션지향적인 행동의 기본 동기라고 했으며, Schiffman과 Kanuk³¹⁾는 의복은 가시도가 높고 지위를 나타내는 품목이기 때문에 준거인들의 반응을 의식하여 구매하게 된다고 했다. Kelly³²⁾, 홍금희와 이은영³²⁾, 김광경³⁴⁾의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수용에 관심이 낮고 의복행동에서도 동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5) 지위의 상징

지위나 책임을 표시하는 옷을 입음으로써 의복을 사회·경제적 위치를 표현하는 지위나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Ryan³⁵⁾은 의복을 입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의복을 통해서 개인을 인식한다고 하여 의복의 신분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Veblen¹⁾은 처음으로 신분상징이론을 의복에 적용하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의복을 우선적으로 고른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Gate⁹⁾는 의복은 개인이 원하는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그리고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자기표현의 반영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Hoult와 Douty³⁶⁾는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옷을 입히면 관찰자가 받는 느낌은 그때마다 다르다고 하여 사회적 지위나 개인을 판단할 때 의복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6) 개인적 만족

자기 확신이나 자기만족을 얻기 위해 의복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Alexander³⁵⁾는 청년기에 있어서 의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매력적인 의복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자신감과 안전감이라고 했다. Ryan³⁵⁾은 자신감과 자아충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더욱 의복을 잘 입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또한 우월성과 의복을 잘 입는데 대한 높은 자기 평가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Drake와 Ford²⁰⁾는 자아존중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의복실험을 즐기며 의복흥미가 높다고 했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춘봉³⁷⁾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의복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신옥순³⁸⁾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이 외모에 대한 자기만족도 높게 나타났다.

7) 무관심

옷을 잘 입는 것에 대하여 거의 중요시 생각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것으로서 Ryan³⁵⁾은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높은 지위에 도달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복은 더욱 중요시되며 청소년기에는 의복이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의복을 중요시 여기며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 노동자가 육체적 노동자보다 의복의 중요성에 보다 관심을 둔다고 하였다. Perry 등⁴⁰⁾은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의복관심이 낮으며, Rosencranz⁴¹⁾는 나이가 많은 여성보다 젊은 여성이 의상흥미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고 월수입이 적은 여성이 의상흥미가 낮으며 도시에 사는 여성이 지방에 사는 여성보다 의상흥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밝혔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표집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태생의 미국인 대학생과 한국태생으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교포 대학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학생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남녀 대학생을 학년과 전공에 따라 유층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미국인 대학생과 교포대학생은 1990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걸쳐 뉴욕주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가운데 유층표집대상 학생들에게 총 500부를 배부하고 회수한 결과 420 부만이 분석처리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한국학생은 199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남녀대학생에게 총 400부를 배부하고 회수한 결과 368부만이 분석처리에 사용되었다. 표집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조사 당시 미국 뉴욕대학 Patricia M. Mulready교수와 본 연구자가 공동연구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명(%)

변인	집 단	한국 학생	교포 학생	미국 학생	전체
성별	남	167 (45.4)	52 (43.3)	105 (36.7)	324 (41.9)
	녀	201 (54.6)	68 (56.7)	181 (63.3)	450 (58.1)
학년	저 학 년	146 (39.7)	57 (47.5)	135 (47.2)	338 (43.7)
	고 학 년	222 (60.3)	63 (52.5)	151 (52.8)	436 (56.3)
전공	인문·사회계	134 (36.4)	36 (30.0)	85 (29.7)	255 (32.9)
	자연·가정계	123 (33.4)	52 (43.3)	112 (39.2)	287 (37.1)
	예·체능계	111 (30.2)	32 (26.7)	89 (31.1)	232 (30.0)
경제수준	하 류 층	79 (21.5)	26 (21.7)	63 (22.0)	168 (21.7)
	중 류 층	173 (47.0)	64 (53.3)	146 (51.0)	383 (49.5)
	상 류 층	116 (31.5)	30 (25.0)	77 (26.9)	223 (28.8)
계		368 (100.0)	120 (100.0)	286 (100.0)	774 (100.0)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작성시 각 문항은 한국과 미국의 양 문화권에 따른 차이로 인해 응답이 곤란한 것은 가능한 배제하고 공통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한국 대학생에게는 본 질문지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크게 의생활 태도, 개인적인 요인, 의생활 양상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1) 의복에 대한 태도

Alexander (1961)의 연구에서 밝혀낸 의복에 대한 태도 7가지 요인 즉, 신체적 외관, 개성의 표현, 인상형성, 승인성, 지위의 상징, 개인적 만족, 무관심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각 요인에 적절한 문항을 작성하고 이를 pre-test를 거쳐 내적 일치도로 신뢰도를 검증한 후 수정, 보완하여 각 변인당 5문항씩 총 35문항을 작성하여 5단계 평정법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해당 의복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개인적인 요인과 의생활 양상요인

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로 각 개인의 성격의 기초가 되는 심리적 특질로서의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을 포함시켰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작성은 Ryan (1966)³⁹⁾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와 관련된 10문항을 작성하여 5단계 평정법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국적, 성별, 학년, 전공, 경제적 수준을 포함시켰다.

국적은 문화권을 알기 위한 것으로 미국, 교포, 한국으로 구분하였다. 학년은 1,2학년은 저학년으로 하고 3,4학년은 고학년으로 구분하였다. 전공은 인문계와 자연계, 예체능계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문화권에 따른 차이와 결과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는 月소득 50만원 미만, 50만원~70만원, 70만원~90만원, 90만원~110만원, 110만원~130만원, 130만원 이상으로 계층을 구분하였으며, 미국학생과, 교포학생은 89년도 미국사회의 경제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年소득 1만불 미만, 1만불~2만 5천불, 2만 5천불~4만 5천불, 4만 5천불~6만 5천불, 6만 5천불~8만 5천불, 8만 5천불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의생활 양상 변인은 의복착용 양상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의복착용양상으로는 의복착용동기(5문항), 옷차림에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4문항), 용도에 따른 옷차림(5문항)을 포함시키고 의복구매행동은 의복선택요인(1문항)과 의복구매장소(8문항)를 포함시켰다. 평정방법은 의복선택요인은 명목적도로 하였으며 그 외의 변인은 각 문항별로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작성을 위한 분석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문항분석을 이용하여 타당한 변인과 문항들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위해서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본 조사에 대한 자료분석은 각 변인의 빈도분포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과 χ^2 -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간의 영향력 비교를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한·미 대학생 및 교포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태도를 비교연구한 것으로 그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에 대한 태도

의복에 대한 태도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F-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문화권에 따른 의복

변 인	한국	교포	미국	F-value
신체적 외관	2.95 A	3.18 B	3.22 B	10.77***
개성의 표현	3.12	3.03	3.20	2.36
인상 형성	2.63 A	3.22 B	3.39 B	68.25***
승 인 성	3.26 A	3.54 B	3.48 B	20.93***
지위의 상징	3.63 C	3.31 B	3.07 A	34.04***
개인적 만족	2.88	2.86	3.03	2.38
무 관 심	2.66 B	2.27 A	2.10 A	44.88***

***p<.001

※ ABC 표기는 Duncan 추후검증 결과 표시임. 부호가 같은 것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2>에 의하면 개성의 표현과 개인적 만족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01). 즉 신체적 외관과 인상형성, 승인성 요인에서는 미국학생과 교포학생이 한국학생에 비해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지위의 상징과 무관심에 대해서는 한국학생이 미국, 교포 학생들 보다 더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미국사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의복이 개인의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동성이나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상형성의 수단으로서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식되고 있음은 물론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서 승인을 얻기 위한 사회적인 목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은 의복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 즉 지위상승이나 신분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옷에 대한 가치관이

나 옷을 잘 입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교포학생이 미국학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 것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성보다는 미국이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들의 의복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분석

1) 자아존중감과 의복 태도

의복에 대한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각 문화권별로 비교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한국학생의 경우, 승인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1$, $p < .001$).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 집단이 부정적인 태도의 학생집단에 비해 모든 의복태도 요인에서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아에 대해서나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학생이 의복에 대해서도 일종의 자기 확신감과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의복에 좀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김광경³⁴⁾, 이영운¹⁸⁾과 신순옥³⁸⁾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교포학생은 승인성과 무관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학생이 의복에 대한 승인성이 높고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학생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따라 의복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의복에 대한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적 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반영된다고 본 Hacklander⁴²⁾, Ford, Drake²⁰⁾, Richards, Hawthorne¹⁹⁾의 연구와, 자아존중감의 높을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다고 한 Klassen, Humphery, Creekmore²⁸⁾의 연구와는 불일치를 보인다.

이로써 각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학생이 교포나 미국학생에 비해 학생 개인이 갖는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의복에 대한 태도나 가치기준이 많이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미국, 재미교포사회의 한국인 학생들이 지니는 의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관이 한국학생들에 비해 보다 확고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려된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의복이란 앞의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자신의 외모나 인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향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낮다하더라도 의복을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국학생의 경우는 서구화된 사회보다는 의복에 대한 시각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의복을 자기표현의 긍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자아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이 작용하여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태도

① 성별 : 각 문화권별로 성별에 따른 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국학생의 경우 인상형성, 지위의 상징과 개인적 만

<표 3> 문화권별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태도

집단 자아존중감 의복 태도변인	한국 학생			교 포 학 생			미 국 학 생		
	낮은집단	높은집단	t-value	낮은집단	높은집단	t-value	낮은집단	높은집단	t-value
신체적 외관	2.71	3.01	-4.80***	2.93	3.22	-1.59	2.97	3.20	-1.33
개성의 표현	2.95	3.18	-3.70***	2.86	2.95	-.45	3.18	3.01	1.18
인상 형성	2.44	2.65	-3.28**	3.01	3.37	-1.43	3.20	3.06	.29
승 인 성	3.31	3.26	2.28	3.52	3.77	-2.46*	3.52	3.41	.75
지위의 상징	3.41	3.79	-5.40***	3.05	3.41	-1.66	2.99	3.10	-.52
개인적 만족	2.71	2.95	-3.39**	2.73	2.99	-1.33	3.20	2.93	1.52
무 관 심	*2.87	2.58	4.64***	2.56	2.22	2.08*	2.16	2.15	.03

*p<.05 **p<.01 ***p<.001

<표 4> 문화권별 성별에 따른 의복 태도

의복 태도변인	한 국 학 생			교 포 학 생			미 국 학 생		
	남	여	t-value	남	여	t-value	남	여	t-value
신체적 외관	2.88	3.01	-1.88	3.10	3.31	-1.22	3.18	3.22	-.33
개성의 표현	3.07	3.14	-1.20	3.01	3.10	-.61	3.03	3.29	-2.58*
인상 형성	2.71	2.54	2.74**	3.14	3.31	-.80	3.50	3.33	1.41
승 인 성	3.29	3.26	.39	3.50	3.56	-.49	3.56	3.43	1.41
지위의 상징	3.54	3.69	-2.40*	3.35	3.56	-.64	2.90	3.12	-1.16
개인적 만족	2.76	3.01	-3.99***	3.35	3.22	.78	2.99	3.05	-.53
무 관 심	2.77	2.57	3.40***	2.35	2.17	.96	2.25	2.05	1.71

*p<.05 **p<.01 ***p<.001

<표 5> 문화권별 학년에 따른 의복태도

의복 태도변인	한 국 학 생			교 포 학 생			미 국 학 생		
	저학년	고학년	t-value	저학년	고학년	t-value	저학년	고학년	t-value
신체적 외관	3.52	3.65	-.57	3.20	3.12	.45	3.14	3.31	-1.37
개성의 표현	3.10	3.12	-.57	2.99	3.07	-.53	3.16	3.26	-1.23
인상 형성	2.59	2.65	-1.11	3.16	3.39	-1.12	3.39	3.39	.04
승 인 성	3.22	3.31	-2.74**	3.48	3.93	-2.41*	3.46	3.52	-.84
지위의 상징	3.71	3.56	2.61**	3.16	3.56	-2.09*	3.12	3.03	.46
개인적 만족	2.93	2.86	1.05	2.78	3.03	-1.39	3.03	3.05	-.32
무 관 심	2.67	2.66	.18	2.35	2.10	1.31	2.19	1.95	2.12*

*p<.05 **p<.01

즉, 무관심변인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를 나타내고 있다(p<.01~p<.001). 즉, 인상형성, 무관심 변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지위의 상징과 개인적 만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긍정반응을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복을 자신의 지위나 신분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의복을 통하여 자기 만족감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들이 지위와 권위를 얻는 수단으로 유행을 따른다는 Coblinger⁴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교포학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학생은 개성표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를 나타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의복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전통적인 남녀 성차별이나 보수적인 성역할태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의복태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며, 반면에 교포, 미국학생

의 경우 의복태도에 뚜렷한 성차를 보이지 않는 것은 보다 개방된 사회의 남녀평등의 사회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② **학년**: 학년에 따른 의복 태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한국학생과 교포학생의 경우, 승인성, 지위의 상징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를 나타내고 있는데(p<.01~p<.001) 한국학생은 승인성에서는 고학년이 높고 지위의 상징은 저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포학생은 두 변인 모두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보다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한국, 교포학생 모두 승인성에서는 고학년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이란 집단이나 사회에 점차 적응하게 됨으로써 그 소속집단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지위의 상징에서의 한국, 교포학생의 상반된 결

<표 6> 문화권별 전공에 따른 의복태도

의복태도변인	집단 전공	한 국 학 생				교 포 학 생				미 국 학 생			
		인문계	예체능	자연계	F-value	인문계	예체능	자연계	F-value	인문계	예체능	자연계	F-value
신체적 외관		2.86 A	3.29 B	2.97 A	3.26*	3.12	3.35	3.18	.45	3.37	3.26	3.18	.48
개성의 표현		3.07 A	3.58 B	3.12 A	8.25***	3.22	3.12	2.90	1.64	3.12	3.31	3.18	.80
인상 형성		2.59 A	3.16 B	2.63 A	6.94***	3.35	2.82	3.26	1.48	3.69	3.39	3.35	1.20
승 인 성		3.26	3.26	3.29	.24	3.71	3.46	3.50	1.73	3.60	3.52	3.46	.73
지위의 상징		3.65	3.84	3.58	2.04	3.65 A	3.46 AB	3.10 B	4.06*	3.52	3.07	3.03	1.41
개인적 만족		2.82 A	3.37 B	2.93 A	6.30**	2.88	2.82	2.88	.02	2.67	2.97	3.12	2.72
무 관 심		2.68 A	2.25 B	2.68 A	4.68**	2.13	2.05	2.39	1.47	2.04	2.08	2.10	.05

*p<.05 **p<.01 ***p<.001

<표 7> 문화권별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복태도

의복태도변인	집단	한 국 학 생				교 포 학 생				미 국 학 생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F-value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F-value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F-value
신체적 외관		2.73 A	2.90 B	3.16 C	15.91***	3.39	3.20	3.36	.25	3.05	3.54	3.20	.97
개성의 표현		2.95 A	3.07 B	3.36 C	11.41***	2.86	3.01	3.12	.41	3.35	3.86	3.22	2.11
인상 형성		2.52 A	2.52 A	2.84 B	12.08***	3.12	3.35	3.12	.30	3.54	3.41	3.35	.22
승 인 성		3.31	3.36	3.24	.86	3.54	3.56	3.22	.02	3.24	3.58	3.50	1.28
지위의 상징		3.43 A	3.60 B	3.75 C	8.16***	3.05	3.35	3.58	.37	3.24	3.54	3.05	1.43
개인적 만족		2.73 A	2.86 A	3.03 B	6.49**	3.12	2.67	3.31	2.76	2.82	.41	3.05	1.71
무관심		2.90 C	2.66 B	2.49 A	13.70***	2.13	2.23	1.90	.25	2.00	1.78	2.12	1.14

p<.01 *p<.001

과는 한국사회의 지위나 신분상징에 대한 인식이 개방된 사회와 비교할 때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고학년의 경우 낮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미국 학생의 경우는 무관심 변인에서만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학년보다 4학년이 의복관심이 낮다고 한 Charron⁴⁴⁾, 이선재⁴⁵⁾의 연구와 차이가 나는 데, 이는 사회적 진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역할로서의 중요성을 사회진출의 일로에 있는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

년 학생들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③ 전공: 전공에 따른 의복 태도의 각 문화권별 검증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한국학생의 경우, 승인성과 지위의 상징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를 나타내고 있다(p<.01~p<.001).

즉, 차이를 나타낸 모든 변인에서 예능계의 학생이 다른 전공의 학생들에 비해 각 의복태도 변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능계 학

생이 다른 전공계 학생보다 의복의 중요성과 유행에 관심이 높다는 이선재¹⁵⁾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반해 교포학생의 경우는 지위에 대한 상징적 효과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미국학생은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④ **경제수준**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복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각 문화권에 따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한국학생의 경우는 수용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고 있다($p < .01 \sim p < .001$). 즉, 대체적으로 모든 변인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의 만족도가 크다는 이영운, 강혜원¹⁶⁾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교포와 미국학생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각 문화권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며 한국학생이 미국학생에 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의복태도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변화와 서구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돈과 물질만능사조 등으로 인하여 생활배경에 따라 주위를 의식하는 생활태도가 의복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대학생의 의복태도에 대한 독립변인 회귀분석 결과

의복태도 독립변인	신체적 외관		개성의 표현		인상 형성		승인성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문화권	.00	.17	-.10	-1.88	.33	7.14**	.31	5.85***
자아존중감	.38	8.97***	.25	5.63***	.31	8.03***	-.08	-1.87
성별	.06	1.34	.07	1.59	-.14	-3.67***	-.04	-.90
학년	.00	-.08	.04	.83	.00	.20	.05	1.27
전공	.02	.50	-.02	-.48	.00	.22	.00	-.17
경제적수준	.09	1.83	.18	3.41***	.05	1.06	-.08	-1.52
Constant	.68		.96		.60		1.54	
R ²	.18		.10		.30		.07	
F-value	19.38***		9.77***		36.28***		6.93***	
의복태도 독립변인	지위의 상징		개인적 만족		무관심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문화권	-.39	-7.74***	-.06	-1.12	-.22	4.50***		
자아존중감	.23	5.38***	.24	5.56***	-.24	5.79***		
성별	.09	2.12*	.13	3.13**	-.14	3.43***		
학년	.00	-.20	.00	.12	.04	1.01		
전공	.09	-2.17*	.09	2.11*	-.03	-.81		
경제적수준	.00	.10	-.07	1.26	-.00	2.23*		
Constant	1.42		.79		.81			
R ²	.17		.10		.23			
F-value	17.65***		9.60***		25.61***			

* $p < .05$ ** $p < .01$ *** $p < .001$

*문화권, 성별, 전공은 dummy 변수화하여 처리하였음.

문화권 : 한국(1) 1 0 0 성별 : 남자(1) 1 0 전공 : 인문계 : 1 0 0
 교포(2) 0 1 0 여자(2) 0 1 자연계 : 0 1 0
 미국(3) 0 0 1 예능계 : 0 0 1

3. 의복태도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비교

의복태도에 미치는 관련변인들간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신체적 외관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성의 표현은 자아존중감과 경제적 수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상형성은 자아존중감과 문화권, 성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승인성은 문화권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의 상징은 문화권, 자아존중감, 성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만족은 자아존중감과 성별, 전공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의복에 대한 무관심은 자아존중감, 문화권, 성별, 경제적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체적 외관과 개성의 표현, 인상형성, 개인적 만족, 무관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러한 의복태도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승인성과 지위의 상징에서는 문화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개방된 사회일수록 의복의 승인성과 지위의 상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과 경제적 수준, 전공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의복태도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위의 상징과 개인적 만족에서는 높은 반응을 보이거나 인상형성과 무관심에서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성표현이 높고 무관심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에 따른 의복태도에서 예능계 학생의 경우 지위의 상징은 낮고 개인적 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의생활 양상

1) 의복 착용 양상

문화권에 따라 한국, 교포, 미국 학생간의 의복착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문화권별로 유의한 차를 나타낸 의복 착용 동기로는 심리적 보호성과 장식성, 신분표시로서, 한국학생이 교포학생, 미국학생에 비해 장식성과 신분표시, 심리적 보호성이 낮은 반응을 보였다($p < .001$). 이는 개방적인 미국 사회에 비해 한국사회는 예의와 정숙성을 중시하였던 전통적인 관습이 그대로 의생활에 반영되어 의복을 장식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인식이 그만큼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의복착용동기가 예의성, 보호성, 장식성, 소속성, 과시성의 순으로 나타났는 김경희, 임숙자⁷⁾의 연구와, 미국여대생은 정숙성이 의복의 동기는 되나 중요한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Barr⁶⁾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것은 신분표시와 심

<표 9> 문화권에 따른 착용 양상

의복착용변인	구 분	한 국	교 포	미 국	F-value
의복착용 동기	수치관념	2.14	2.06	2.11	0.23
	심리적 보호성	2.58(A)	2.75(AB)	2.96(B)	9.87***
	신체적 보호성	2.83	2.80	2.73	0.68
	장 식 성	2.82(A)	3.55(B)	3.57(B)	57.52***
	신 분 표 시	2.14(A)	3.24(B)	3.52(C)	136.89***
옷차림에 대한 준거 집단의 영향	친구, 동료	2.58	2.56	2.41	1.67
	선후배(주위사람)	1.53(A)	1.5(A)	1.90(B)	13.30***
	이성친구(파트너)	2.53(A)	2.50(A)	2.90(B)	7.31***
	가 족	2.36	2.37	2.18	1.95
용도에 따른 옷차림	일상생활(학교, 학생 활동)	2.49(A)	3.35(B)	3.45(B)	106.25***
	가정내, 휴가시	1.86(A)	2.01(A)	2.35(B)	31.92***
	동료친구와 만날때	2.34(A)	2.63(B)	2.98(C)	34.85***
	이성친구와 만날때	2.81(A)	2.99(AB)	3.21(B)	14.94***
	중요한 모임(파티, 미팅)	2.92(A)	3.05(AB)	3.08(B)	3.71*

* $p < .05$ *** $p < .001$

리적 보호성에 있어서도 값비싼 고급품의 의복이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하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데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편 서구문화권에서는 의복이 장식과 신분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보다 높음에 따라 의복이 자신의 지위와 외모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옷차림에 대한 준거집단의 영향도는 세집단간에 이성친구와 선후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즉, 미국학생이 한국이나 교포학생에 비해 이성친구와 선후배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개방된 문화권에서 외모와 의복이 이성에게 호감을 끌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본다. 이것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아실현의 향상수단으로 의복을 이용한다는 MaGulloug⁹⁾의 견해와 일치한다.

용도에 따른 옷차림은 모든 항목에서 한국학생이 교포와 미국학생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p < .001$). 이로써 한국학생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적합한 의복을 구별하여 착용하는데 관심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복구매행동

문화권에 따라 의복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의복선택요인은 한국학생의 경우는 의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감각적 기준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고 기능적 기준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포학생은 경제적, 기능적, 상점신뢰도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고 미국학생은 상점의 신뢰도에 가장 높은 관심을, 그 다음으로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이로써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 대학생들은 의복선택시 디자인이나 스타일 등의 심미적, 감각적 요인을 중요시한다는 김광경²⁸⁾, 임숙자¹⁶⁾, 이희남¹¹⁾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의복 선택시 유행이나 심미성 등 감각적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본 Latzke¹²⁾, Warden¹³⁾, Hurlock¹⁴⁾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에 반해 교포와 미국학생의 경우 감각적 기준보다는 상점신뢰도가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작용함은 Holton과 Sproles et al의 보고와 일치한다.

의복 구매시의 장소는 모든 항목에서 세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학생이 교포나 미국학생에 비해 백화점과 의류전문점, 양품점의 이용율이 낮은 반면 기성복 직매점이나 할인판매점, 보세취급상점의 이용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수준의 차이로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미국 대학생들이나 재미교포학생들이 의복구매시 상점의 전문성을 보다 중시하는 연유와 백화점이 계층별로 고객수준에 따라 구분되

<표 10> 문화권에 따른 의복 구매 행동

의복선택변인	구 분	한 국	교 포	미 국	F, x ² -value
의복선택 요인	경제적 기준(가격)	70(18.9)	32(26.7)	48(16.8)	x ² =179.91760 df=8 p<.001
	기능적 기준(직물, 바느질, 맞춤새)	82(22.3)	32(26.7)	68(23.8)	
	감각적 기준(색상, 스타일)	196(53.2)	20(15.8)	25(8.7)	
	사회적, 심리적 기준(유행상품, 상표)	13(3.6)	5(4.2)	14(5.2)	
	상점신뢰도	7(2.0)	32(26.7)	130(45.5)	
구매 장소	백 화 점	2.24(C)	3.10(B)	2.98(B)	38.01***
	기성복 직매점	2.54(C)	2.20(B)	1.76(A)	26.05***
	할인 판매점	2.37(B)	1.50(A)	1.31(A)	70.24***
	의류 전문점, 의상실	1.44(A)	2.71(B)	2.78(B)	123.24***
	양 품 점	1.47(A)	2.17(B)	2.15(B)	38.12***
	보세취급상점	1.91(B)	1.51(A)	1.72(B)	5.47**
	세일(Sale)	2.58(A)	3.21(B)	2.96(B)	8.17***
	도 매 시 장	2.36(A)	2.30(A)	2.88(B)	11.06***

p<.01 *p<.001

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백화점 이용이 선호된다고 본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거주지역에서 멀리 쇼핑하러 가는 경향이 있고 상표를 중요시한다는 Stone, Form⁴⁷⁾, Converse⁴⁸⁾, Ryan³⁹⁾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으로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남·녀 대학생들 간에 전반적인 생활 양상이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1. 의복에 대한 태도

의복에 대한 태도는 문화권에 따라 개성의 표현과 개인적 만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즉 신체적 외관과 인상형성, 승인성 요인에서는 미국학생과 재미교포학생이 한국학생에 비해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나 지위의 상징과 무관심에서는 한국학생이 미국학생과 교포학생보다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2.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자아존중감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권에 따라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국학생의 경우는 승인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학생이 낮은 집단의 학생에 비해 보다 높은 긍정적인 의복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재미교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의복에 대해서도 승인성이 높고 관심 있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학생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따라 의복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학생이 교포나 미국학생에 비해 의복에 대한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권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성별 : 한국학생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의복태도 변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즉 인상형성, 무관심 변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지위의 상징과 개인적 만족에서는 여학생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포나 미국학생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② 학년 : 문화권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학생은 고학년일 때 승인성이 높았으나 지위의 상징에서는 저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포학생의 경

우, 두 변인에서 모두 고학년학생이 저학년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은 무관심 변인에서만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③ 전공 : 한국학생의 경우 승인성, 지위의 상징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예능계 전공학생이 타전공 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의복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교포학생은 지위의 상징에서만 인문계가 자연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미국학생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④ 경제수준 : 한국학생의 경우에서만 승인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상류층일수록 긍정적인 의복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고 교포와 미국학생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각 문화권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한국학생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3. 의복태도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비교

대학생의 의복태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는 신체적 외관과 개성의 표현, 인상형성, 개인적 만족, 무관심에서는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승인성과 지위의 상징에서는 문화권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성별과 경제적 수준, 전공이 변인별로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4. 의생활 양상

1) 문화권에 따른 의복착용양상은 세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① 의복착용동기에 대해 문화권에 따라 한국학생이 재미교포, 미국학생에 비해 장식성과 신분표시, 심리적 보호성에서 낮은 반응을 나타냈다.

② 옷차림에 대한 준거집단의 영향도는 미국학생이 한국, 교포학생에 비해 이성친구와 선후배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용도에 따른 옷차림은 모든 항목에서 한국학생이 교포와 미국학생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다.

2) 문화권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은 세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① 의복선택요인은 한국학생의 경우 감각적 기준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이 기능적 기준으로 나타난 반면, 재미교포학생은 경제성, 기능성, 상징신뢰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미국학생은 상징의 신뢰

도를 가장 중시하고 다음으로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능성은 동·서 대학생 모두에게 중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② 의복구매시 구매장소의 이용빈도는 한국학생이 교포나 미국학생에 비해 백화점과 의류전문점, 양품점의 이용도가 낮은 반면, 기성복 직매점이나 할인판매점, 보세취급상점의 이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의생활양상과 의복에 대한 태도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형식과 의식을 중시하던 전통적 문화특성이 의생활이나 의복태도에 있어서도 의복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신분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그 가치를 한정시키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개방된 미국사회의 문화는 의복을 보다 개인적인 장식의 수단과 사회적인 인상형성을 위한 외모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역할을 확대시켜 많은 관심과 가치를 부여시키고 있다.

이로써 미국대학생이나 재미교포 학생들이 한국학생들에 비해 의복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기준이 확고함을 말해주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학생의 의복태도가 두 문화권간의 중립적인 양상이기보다는 미국학생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때 민족성보다는 그들이 생활하는 문화권에서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앞으로 문화권에 따라 대상과 변인을 달리한 여러각도에서의 확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1)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 2) Sady, R.R., *Perspectives from Anthropolog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70).
- 3) 강경자, 여대생의 기본육구와 의복선택행동간의 관계 연구—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2**, 4, pp. 11-25, (1984).
- 4) Milgram, S., *Nationality and Conformity*, *Scientific American* 205, 6, 45-61, (1961).
- 5) Chen, J., *Clothing Attitudes of Chinese and American Colleg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9).
- 6) McGullough, E.A., et al., *Sexually Attractive Clothing: Attitudes and Usage*, *H.E.R.J.* **6**, 165, (1977).
- 7) 김경희, 임숙자,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 동기와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7**, 2, pp. 1-10, (1983).
- 8) 이금실, 강혜원,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 2, pp. 79-81, (1978).
- 9) Burnkrant, R.E. and Cousineau, A., *Informational and Normative Social Influence in Buyer Behavior*, *J. of Consumer Research*, **2**, pp. 206-215, (1975).
- 10) Witt, R.E. and Bruce, G.D., *Purchase Decisions and Group Influence*, *J. of Marketing Research*, **7**, pp. 533-535, (1970).
- 11) 이희남, 남자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 2, pp. 1-11, (1984).
- 12) Latzke, A. & Hoster, H.P., *The Wide of Clothing*,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268 (1968).
- 13) Wardden, J.A., *Some Desires or Goals for Clothing of College Women*, *J. of Home Economics*, Vol. 49, 10, p. 795, (1957).
- 14)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Arno press, 16-17, (1976).
- 15) 이선재, 한국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구매 행위와의 상관연구, *생활과학연구*, (1989).
- 16) 임숙자, 의복선택의 동기에 관한 연구, *이대 한국생활과학연구원 논총*, (1976).
- 17) *College Survey: "Women's Market"*, *Clothes Magazine*, (1978).
- 18)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 2, pp. 17-24, (1981).
- 19) Richards, E.A. and Hawthorne, R.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 of Home Economics*, **63**, 190-194, (1971).
- 20) Drake, Mmary Frances & Ford, Imogene 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5, pp. 283-291, (1979).
- 21) Sontag, M.S., and Schlater, J.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Textiles Research Journal*, **1**, pp. 1-8, (1982).
- 22) 박광희, 강혜원,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 1, pp. 13-19, (1984).
- 23) 이인자,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 pp. 13-19, (1984).

- 24) 이미경, 이인자,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9, 1, pp. 9-16, (1985).
- 25) 강경자, 성인여성의 자아실현도가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7, 3, pp. 1-11, (1989).
- 26) Erwin, M.D., et al., Clothing for Moderns, 6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22, (1979).
- 27) Horn, M.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276, (1975).
- 28) Carolyn Humphrey, Mary Klaasen, and Anna M. Creekmore,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6-250, (1971).
- 29) Reeder, D.N.: Clothing Preferences of Male Athletes in Relation to Self-concept Athletic Ability,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Peer Perception, Doctoral,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1977).
- 30) Jacobson, W.E., Human Motives Underlying Fashion Changes, *Practical Home Economics*, 14, 230-231, (1958).
- 31) Schiffman, L.G. and Kaunk, L.L., Consumer Behavior, Third Editi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Editions, p. 375, (1987).
- 32) Kelly, E.A., Daigle, C.W., Lefleur, R.S. and Wikon, L.J.,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pp. 167-175, (1974).
- 33) 홍금희, 이은영, 성인여성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연구—연령과 직업변인에 의한, 한국의류학회지, 7, 1, pp. 11-225, (1984).
- 34) 김광경, 자아정체감과 의복의 관심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1, 4, pp. 19-28, (1983).
- 35)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ulst Rinehart and Winton, p. 64-66, 81, 286-301, (1966).
- 36)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pp. 133-151, (1984).
- 37)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38) 신옥순,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심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39) Ryan, M.S., Factors Relating to Satisfaction with Girl's Blouses and Skirts: A Comparison of Mother's and Adolescent Daughter's Opinions Cornell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1003, (1965).
- 40) Perry, M.O., Schutz, H.G., & Rucker, M.H., Clothing Interest, Self-Actua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J. of Home Economics*, 11, 3, pp. 280-288, (1983).
- 41) Rosencranz, M.L., A Study of Women Interest in Clothing., *J. of Home Ec.*, 41, (1949).
- 42) Hacklander, E.H., The Relationship of Body Concern and Clothing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8).
- 43)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Arno press, 16-17, (1976).
- 44) Charron, A.L.: The Clothing Interest of the three Groups of Young Adult Men Differentiated by Stage in Life,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p. 37, (1977).
- 45) 이선재, 남녀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제21집, (1989).
- 46) Barr, Estell, A Psychological analysis of Fashion Motivation, Archives of Psychology, p. 77, (1934).
- 47) Stone, G.P. and Form, W.H., The Local Community Clothing Market: A Study of the Social and Socio Psychological Contexts of Shopp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1957).
- 48) Lonverse, P.d., Factors Determining Retail Shopping Preference, Dun's Review, 55, pp. 21-72, (1947).